

치 사

오늘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개최하는 “2013년 수화사랑음악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 깊은 원력으로 매년 음악회를 이어오신 해성스님과 연화원 가족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장애인들이 법당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광림사 연화원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 포교의 중심에 있는 전법도량이자 장애인들의 안식처입니다.

더불어 오랫동안 수화사랑음악회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부처님의 법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문화의 마당이자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장애인복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이를 전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연화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장애인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자활’이나 ‘자립’, 그리고 ‘사회적응’이라는 용어들이 필요없이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되어 소통하는 불국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극복해가면서 서로가 통합하고 고통과 갈등을 넘어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자리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타고난 소질과 재능이 있는가하면 살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나누는 마음으로 주변을 보살피고 함께 극복하다 보면 모두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불국정도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축제의 취지와 같이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자기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 나눔과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수화사랑음악회를 축하하며, 훈훈한 온정이 자비광명으로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7(2103)년 12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